

# 침실 머물던 박근혜, 당일 오전 '구조 골든타임' 전화도 안돼

## 세월호 보고서 조작 수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며 뒤늦게 첫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발생 보고를 서면으로 받은 시각은 당일 오전 10시19분~10시20분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했던 10시보다 20분가량 늦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에 사전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은 곧바로 보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의 침실에 머물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마치면 주로 집무실이 아닌 관저로 돌아와 근무하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무렵에는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세월호 당일이 수요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도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수 당시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가

## 수차례 부른 후 첫 보고

##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권유

상황보고서 1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대통령 보고가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해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신 센터장은 10시12분께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한 후 상황병을 통해 관저로 전달을 지시했다. 이에 상황보고서를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기만 했다.

이 와중에 김 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가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안봉근 비서관이 10시 12분께 승용차를 이용해 본관 동문을 출발해 관저로 갔고, 10시 20분께 관저 내부에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차례 부른 후에야 박 전 대통령은 침실 밖으로 나왔다. 세월호 상황보고서 1보를 접한

것도 이때로 추정된다.

안 비서관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하며 10시 22분께야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시각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던 10시 17분을 이미 넘겨 구조불가능한 상태로 선체가 침몰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 방문도 최씨가 참여한 당시 '5인 회의'에서 결정됐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 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일에 최씨가 관저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탄핵심판 과정까지 국민에게 '비선 실세'의 존재를 숨긴 것이 된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석현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최고위 장만채 입당·결선투표 논의 재차 보류

### 내일 회의서 결론 날 듯

### 국회의원 재보선 신청 공고

전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광역단체장 경선투표 도입 문제와 장 전 교육감의 입당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추미애에 대표가 몸살로 최고위에 불참하면서 지난 26일에 이어 결론이 재차 보류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장 전 교육감 문제는 30일

최고위나 주말에 최종 결론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을 포함, 일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유보됐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결선투표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추천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추미애에 대표가 몸살로 최고위에 불참하면서 지난 26일에 이어 결론이 재차 보류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장 전 교육감 문제는 30일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 등 4개 지역은 추후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심사 절차와 선거 전략 등을 고려, 1차로 3개 지역에 대해 공모에 나섰다"며 "나머지 지역은 추후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보선 전략공천설과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최고위에서 논의된 바도 없으며 이제 1차 공모에 나서는데 전략공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현재의 재보선 지역에는 예비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강력하게 형성된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전략공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현직 사임후 그림 그리고 글만 쓴 처칠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19) 다키스트 아워

올해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는 윈스턴 처칠(1874~1965)이 주인공이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 5월 프랑스 항구 덩케르크에서의 대규모 철수작전을 결단하고 끝낼 때까지 19일간 처칠이 고뇌하고 변민하면서 힘겨워했던 '가장 암흑의 시간'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덩케르크 작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영화 '덩케르크'를 관람하면서 처칠이 얼마나 큰일을 해냈는지 실감하지 못했는데 두 편의 영화를 잇달

아 보고서야 영국 역사, 아니 세계사를 바꿔놓은 처칠이라는 인물에 새삼 몰입하고 열광할 수 있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안에서 상륙지에서, 들판과 시가지에서도 싸울 것이며 언덕 위에서도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처칠이 의회에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했던 명연설은 국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이끌었던 처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영화에서도 명장면이었다.

전설적인 연설가이자 저널리스트, 전기 작가이자 역사가, 소설가로서 195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처칠은 유명한 화가이기도 했다. 마흔이 지나서 유화를 그리기 시작한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5년을 제외하고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고, 현직에서 사임한 후에는 우리나라 고위 정치인들의 관행처럼 행보와 다르게 어디든 기웃거리



윈스턴 처칠 작 '금붕어 연못'

지 않고 그림 그리고 글만 썼다.

처칠의 '금붕어 연못'(1932년 작)은 '영국의 정열'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캔트 지방의 언덕 위에 자리한 처칠의 사립집 차트웰에서 그린 것으로 나뭇잎들이 드리운 그늘 아래 수초 사이를 유영하는 금붕어들이 평화스러운 그림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14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31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는데 영국인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처칠이 그렸고 전문가 수준의 그림 실력 덕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국제기획실장·미술사박사>

## 박지원 "전남도지사 출마 지도부가 결정할 것"

###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 초대 원내대표·명칭 담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현역 의원의 6·13 지방선거 출마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에 관해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가 지금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제 아내가 투병 중에 있어서 약 4개월 활동도 못했고 또 정의당과 통합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도부에 상의는 했다"고 말했다.

국회 원내 공동교섭단체가 되려면 최소 20석을 갖춰야 한다. 애초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이용호 무소속 의원까지 총 21석으로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돌연 공동교섭단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양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의원을 내려놓을 경우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렵게 흐르자 정의당은 평화당을 향해 지방선거 불출마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해온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초대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명칭 문제 등 핵심 쟁

점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였다.

그동안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의 첫 원내대표를 지당에서 맡겠다고 주장하자 평화당은 의석수가 14석으로 정의당(6석)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이와 관련, 평화당 관계자는 이날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당내 양분이 있다"며 "오늘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정의당을 상대로 초대 원내대표 양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교섭단체 명칭,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각 당 정책위원 선정 등을 문제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